

정답표

시험회차 : 제33회 한국어능력시험

영역 : 중급 표현(쓰기)

문항번호	정답 (객관식)	배점	문항번호	정답 (객관식)	배점
31	④	4	36	②	4
32	③	4	37	④	4
33	④	4	38	②	4
34	③	4	39	①	4
35	②	4	40	①	4

문항번호	모범답안 및 채점 기준 (주관식)	배점
41	내일 행사에 참석할 때 무슨 옷을 입을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.	7
42	옛날에 살던 동네에 어제 다시 가 봤더니 거리가 많이 변해 있었다.	7
43	먹어서는 안 되는	8
44	집에 사느냐	8

<p>45</p>	<p>사람들에게는 누구나 한 분쯤 존경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. 나에게도 그런 분이 계신다. 그 분은 바로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김경희 선생님이시다.</p> <p>그 분은 연세가 좀 많으신 여자 선생님이셨다. 예쁘고 젊은 선생님을 기대했던 우리들은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다.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점점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었다.</p> <p>선생님은 우리들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의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여 주셨다.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만큼 우리의 생각도 넓어질 수 있었다. 또 선생님은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려 주셨다. 그 전에 나는 공부를 너무 지루해하는 아이였는데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은 언제나 재미있었다. 수업 시간에 우리는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신나게 공부를 했다. 그 뒤로 나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로 바뀌었다.</p> <p>선생님과 헤어진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선생님이 많이 생각난다. 이번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을 찾아가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.</p>	<p>30</p>
-----------	--	-----------